

PA-031

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직파시기별 수량과 품질 특성이성태^{1*}, 성덕경¹, 남진우¹, 김영광¹¹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, 경상남도농업기술원**[서론]**

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밥쌀용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인,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간편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공용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국내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14년 535 천톤에서 2018년에는 756 천톤으로 증가되었다. 최근에는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이 육성되었고 품종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. 본 시험은 현재까지 개발된 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의 직파재배 시기별 수량, 수발아 특성 및 손상전분 함량을 분석하여 생산비 절감과 원료곡 최대 안정생산으로 쌀가루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수행하였다.

[재료 및 방법]

쌀가루 가공용 벼 재배실험은 경상남도 진주시 초장동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연구포장에서 실시하였다. 쌀가루 가공용 벼 직파 시기는 4처리로서 5월20일, 5월30일, 6월10일, 6월20일이며 무논점파 기계파종을 하였다. 시비량으로 신길은 질소-인산-칼리=18.0-4.5-5.7 kg/10a 으로 나머지 품종은 표준시비량으로 질소-인산-칼리=9.0-4.5-5.7 kg/10a 시용하였다. 시험에 사용된 쌀가루 가공용 벼는 4품종으로 설갱, 한가루, 신길 및 전주615호를 사용하였다. 벼의 수량구성요소, 수발아, 손상전분함량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조사분석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.

[결과 및 고찰]

쌀가루 가공용 벼 품종별 현미 수량은 신길이 모든 직파시기에서 603 kg/10a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6월10일 이후 직파에서 수량은 감소하였다. 분질 특성을 가진 전주615호의 수량이 가장 낮았으며 직파시기별 수량차이는 없었다. 전주615호는 조생종으로 분얼도 적어 수량이 낮았는데 재식밀도를 30×14 cm에서 30×12 cm로 변경하였을때 수량은 19% 증가되었다. 수확기 품종의 수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직파시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품종은 신길로서 수발아율 1.0% 이하 이었다. 가장 높은 수발아율을 보인 품종은 전주615호로서 5월20일 파종 시 수발아율은 6.7% 이었고 직파시기가 늦어질수록 수발아율은 낮아졌다. 손상전분 함량은 품종과 직파시기별 상관없이 2.6% 로서 양호하였고 분질 특성을 가진 전주615호가 1.7% 이하로 가장 낮아서 우수하였다.

[사사]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(과제번호: PJ012960082019)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.

*주저자: Tel. 055-254-1222, E-mail. lst08@korea.kr